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특별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16년 7월 6일(수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우리에게 필요한건? 압도적 찬성!

7월 6일(수) ~ 8일(금)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금속노조 투쟁체제로!

금속노조가 본격적인 투쟁 준비에 나섰다. 2016년 임단협이 정부 행정지침과 자본의 무성의한 태도로 난항인 가운데 노조는 지난 30일 일괄 조정신청에 돌입했다. 지부는 8일과 11일 조정회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쟁의권을 확보한다. 6일부터 8일까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조합원들의 의사를 물을 계획이다. 노조의 투쟁 준비가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것이다.

임단투와 열사투쟁 승리를 위해

올해 임단투는 시작 전부터 정부의 개입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임단협이 시작되자 자본은 정부의 노동개약 지침에 따라 각종 개약안을 들고 나왔다. 교섭이 한참 진행된 지금까지도 개약안을 철회하지 않으며 지회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지부교섭에서는 일반해고 금지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 지침대로 일반해고를 시행하겠단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조합활동 보장 등 일부

요구안에 대해서는 아예 '제시안 없음'이라는 말로 지부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또 우리는 한광호 열사투쟁을 통해 현대차를 비롯한 재벌의 하청업체 쥐어짜기와 노사문제 개입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잘 알고 있다. 열사가 현대차와 유성기업의 노조파괴로 돌아가셨는데도 자본은 100일 넘도록 사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열사를 차가운 냉동고에 가둬두고 있는 현대차와 유성기업에 노조파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압도적 가결로 투쟁의지를 모읍시다!

정부의 불법 행정지침과 재벌의 지배개입까지 넘어야 할 벽이 많다. 그러나 장벽이 많은 만큼, 투쟁의 지도 타오르고 있다. 올해 지부 파업 출정식이 어느 때보다 힘있게 준비되고 있다. 임단투와 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마음이 모이고 있다. 그 첫 발걸음이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될 것이다. 반드시 압도적인 가결로 우리의 투쟁의지를 보여주자! 불법 정권과 막무가내 자본에게 빼앗긴 민주노조의 권리를 되찾는 투쟁을 시작하자!

한광호 열사투쟁 승리! 2016년 임단투 승리!

“열사를 고이 보내드리고 싶다”

한광호 열사가 차디찬 냉동고에 112일째 모셔져 있다. 홀로 남은 어머니는 안타깝게 죽은 아들을 보내지 못하고 애끓는 마음만 부여잡고 있다. 그렇다고 현대차와 유성기업의 사과 없이, 노조파괴 중단 없이 그냥 열사를 보낼 수도 없다.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는 한광호 열사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노숙농성이 두 달째 진행 중이다. 현대차 용역과 경찰은 농성을 짓밟는데 혈안이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장맛비가 쏟아지는데도 비닐 한 장 덮지 못하게 뜯어간다. 현대차 표지석 앞에서 집회라도 하려 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열사의 영정까지도 박살낸다. 무법천지에 최소한의 양심도 없다.

현대차의 이런 반응은 오히려 열사투쟁으로 인해 현대차가 사회적 압박을 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자신들의 상징인 표지석을 두달째 천으로 덮어놓고 있을 정도이다. 스스로 얼굴을 가린 부끄러운 자본의 모습을 양재동 현대차에서 볼 수 있다.

금속노조 올해 투쟁의 핵심은 ‘재벌개혁’이다. 재벌의 갑질이 하청업체 노사관계에까지 직접 개입하는 상황이다. 현대차와 유성기업의 노조파괴를 끝장내는 투쟁은 재벌개혁 투쟁의 핵심이 될 것이다.

유성지회, 대전충북지부만의 투쟁이 아니라 금속노조 전체의 투쟁으로 열사투쟁을 승리로 마치자. 이제 정말 열사를 고이 드려야 한다. 열사가 노조파괴 없는 세상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함께 싸우자.



이득은 재벌에게! 손해는 노동자에게? 재벌에게 책임을!!

금속노조가 재벌에게 책임을 묻는 투쟁을 시작했다. 그동안 경제성장의 성과는 전부 재벌의 이득으로만 흘러들어갔고, 경제위기의 책임은 노동자에게만 강요받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왔을 때 재벌기업은 국민 세금으로 목숨을 건졌다. 노동자는 정리해고로 길바닥에 나앉았지만, 재벌은 건재했다.

2016년,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500조원을 넘어섰고, 전체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1,200조원을 넘었다. 그 사이 서민들은 가계부채가 1,200조원을 넘겼

다.

재벌의 막대한 이윤은 하청업체 납품단가 후려치기, 비정규직 노동자 쥐어짜기, 노조파괴 등으로 만들어진 결과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가 오자, 노동자 정리해고부터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정권과 재벌의 태도다.

노조는 재벌개혁 입법투쟁, 임단투와 연계한 사회적 투쟁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7월 22일에는 대규모 파업 상경투쟁을 통해 재벌개혁 투쟁의 도화선을 만들 예정이다.